

자력갱생을 변명의 보검으로 들머치고

타일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하는 길에서

자력갱생은 자체의 힘과 기술, 자체의 자원으로 세계를 앞서는 민족자존의 정신이며 첨단과학의 정신이다.

나라의 타일공업을 개척해 나가는 초행길에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으로부터 자력갱생의 본보기공장이라는 분에 넘치는 평가를 받아안은 천리마타일공장의 자랑스러운 투쟁본대는 개발창조이다.

지금으로부터 5년전 천리마타일공장의 일꾼들과 기술자들은 타일생산에 필요한 유약원료를 100% 국내산 원료로 만들기 위해 달려왔다.

공장서 유약생산에 필요한 원료의 대부분을 자체로 보장하고있었으나 제일 값비싼 프리트란은 수입에 의존하고있었던 것이다. 프리트의 질이자 유약의 질이고 유약의 질이자 타일의 질이라고 볼 때 프리트의 국산화는 타일공업의 주체화에서 반드시 절령해야 할 고지였다.

수십차례 시험을 거듭하는 과정에 공업시험소의 기술자들은 국내원료를 프리트생산

에 쓸수 있다는것을 밝혀냈다. 나라에 프리트원료가 없다고 하던 기성관련을 타라한것으로 하여 그 짝은 참으로 소중한것이었다.

자체로 만들어낸 그 프리트가 살붙이처럼 귀중했지만 일꾼들은 이에 만족할수 없었다. 아직 일부 첨가제들은 수입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우리 나라에는 그런 땅이 없다. 없는것을 있게 할수야 없지 않는가, 첨가제는 좀 쉬어도 우리 손으로 프리트를 만들어냈다. 그것만도 대단하지 않은가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일꾼들은 0.1%가 모자라는 100%를 100%라고 할수 없다는 투철한 관점을 가지고 그 해결에 달려들었다.

여러 지방에서 가져온 장석을 가지고 배합비를 변경시키면서 실험하기를 그 몇번, 거듭되는 실험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실험한 보람이 있어 끝끝내 시험로에서 성공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

하나 정작 로에서 대량생산을 하자니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1 500°C나

되는 온도에서도 용융물이 나오지 않아 기술자들이 안타까움으로 속을 태우고있을 때 공장의 책임일꾼들이 현장에 나왔다.

《우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이 그렇게 쉽겠소?》

《지금껏 우리가 안된다. 그것을 해냈지 언젠 뒤 쉽다는것만 하겠소? 이쯤한 실험야 다 겪어본것이 아니요.》

이때 한 노동자가 용융물이 활활 나오게 류출구를 낮춰놓는게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사실 기술의 비밀이란 신비한 오술의 세계처럼 알고 보면 간단한것이다. 한 노동자의 단순한 말에서 실마리를 찾은 기술자들은 류출구위를 약간 낮추고 용융도를 조금 높이는 방법으로 마침내 국내원료에 의한 프리트생산에서 성공하고자말았다.

투쟁의 갈피마다에 뚜렷한 자욱을 남기며 헤쳐온 개발창조의 길에서 완전히 국산화된 프리트가 나오기야말았으니 공장에서는 2016년 가을에 이어 2017년과 2018년

에도 자체로 만든 유약으로 외부타일생산을 전부 보장하였다.

감수제를 자체로 만들기 위한 연구 또한 험치 않았다.

타일을 생산할 때 원료가 공과정에서 수분을 줄이는것이 중요하데 여기에 쓰이는 첨가제가 감수제이다. 감수제를 공장에서는 하루에도 몇(씩) 리용하고있었다.

그러하여 국내에 흔한 원료를 리용한 감수제연구에 달려붙은 공장의 기술자들은 너달동안의 고집이런 노력끝에 질 좋은 감수제를 만들어 내고야말았다.

완강한 투지로 천리마타일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새 제품개발사업도 즐기치게 내밀었다.

세계적인 타일발전추세에 맞게 유연면타일개발에 본격적으로 달려들었다.

이 타일은 몇해전 다른 나라의 한타일하는 기술자들이 조선의 원료로는 어렵도 없다고 두손들고 나앉은 제품이었다.

자력갱생하는 길은 생소하고 험난하지만 참으로 멋있고 보람있는 애국의 길이다.

오직 전진, 혁신만을 아는 공장의 일꾼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경소마그네샤스레트, 유리모자이크, 색돌외장재, 투수기능이 좋은 기능성 색보도블록, 장식부각타일 등 현대건축이 요구하는 실용적인 마감제품들을 련속 개발하였다.

이곳 일꾼들과 기술자들은 개발창조의 극한점들을 무수히 넘는 과정에 자력갱생의 정신만 강하면 그 어떤 기술의 요새도 문제로 되지 않는다는것을 실지 체험을 통하여 확신하였다.

오늘도 천리마타일공장은 타일공업의 명맥을 확고히 틀어쥔 자력갱생의 본보기 공장으로서의 위용을 힘있게 떨쳐가고있다.

본사기자 김진혁



천리마타일공장 생산현장 (2019년)

악성전염병과의 싸움에서 동포애를 발휘하며

◆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에서 ◆



- ① 조청후꾸우가 야하다지부에서는 조청봉사대를 무어 고행동포들에게 자기들이 만든 마스크와 소득액을 전달하였다.
- ② 니시도교조선제2중급학교 어머니회에서 제작한 마스크가 학생들에게 전달되었다.
- ③ 도교조선제4중급학교 어머니회에서는 학생들과 동포들을 위하여 마스크제작사업에 떨쳐나섰다.
- ④ 기후청상회에서 마련한 마스크가 조선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학교들에 전달되었다.

본사기자

소문난 송도원종합식료공장 제품들

여로부터 《백사청송》이라 불리는 동해명품 송도원의 푸르싱싱한 소나무술을 지나 얼마쯤 가느라면 아담하고 산뜻한 공장전경이 한눈에 안겨온다.

인민들이 항상 즐겨 찾는 제품,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는 다양한 식료제품들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온 나라에 소문이 난 송도원종합식료공장이다.

송도원종합식료공장에서 생산하는 사과, 단실기, 영양즙, 과일향사탕, 우유사탕 등은 도내에서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공장에서는 오늘날도 다종



본사기자

정중어의 고향은 경상남도 거창군이다.

망국의 비운이 무겁게 드리웠던 1914년 12월 가난한 농가의 셋째아들로 태어난 그는 보통학교에 다닐 때 벌써 미술에 대한 남다른 재능을 보여주었다.

정중어는 늘 꽃과 새, 나비, 닭 등 주위사물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즐겨 그렸는데 언제나 생동했던것처럼 유려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하나 가난하고 조물리는 생활은 그의 작은 희망마저 허용하지 않았다.

겨우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더는 배움의 길을 갈수없게 된 그는 그때부터 약국과 개인병원을 떠돌며 잡심부름을 하다가 나중에는 일자리를 찾아 현해란을 건드게 되었다.

도에서 신문배달도 해보고 자전기와 전동알을 만드는 자그마한 공장에 들어가 일하기도 하면서 이국살이의 설움을 지겹도록 맛보았다.

그런 속에서도 미술을 하고싶은 욕망만은 버릴수가 없어 짊짊이 인몰초상그리는 법을 배웠다.

그러던중 정중어는 직업적인 화가가 될 꿈을 안고 오사카미술학교에 들어갔다.

고학생활의 어려움속에서 갖은 벌시와 천대까지 받자니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몇번이나 하였지만 그때마다 미술에 대한 희망을 버릴수가 없어 눌러앉은 하였다.

미술학교에 다니는 기간 그가 그린 그림들은 대체로 고향산천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었다.

그가 형성한 조선화작품들인 《해인사계곡풍경》(1937년), 《가을교외》(1938년), 《산촌의 물소리》(1939년), 《3월의 눈》(1940년), 《홍류동의 봄》(1940년)을 비롯한 많은 작품들이 당시 화단의 눈길을 끌었다고 한다.

정중어는 미술학교를 졸업하고 1941년에 고향에 그려보던 고국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는 고향과 강화도에서 창

공화국의 품에 안겨

이름난 화가로 성장하던 나날에

작생활을 하면서 《정제》라는 호로 여러 전람회들에 조선화작품들을 출품하였는데 그중에는 조선화 《석굴암의 아침》(1941년), 《논내린 들》(1942년), 《기다리는 사람들》(1944년)과 같은 우수한 작품들도 있다.

꽃사람들의 시선을 끌며 미술창작에 열중하던 정중어는 서울에서 해방을 맞았다.

(아, 이제는 내 나라 내 땅에서 마음껏 그림을 그릴수 있게 됐구나!)

그는 새 조선의 미술발전을 위해 주춧돌이 되리라 결심하고 당시 서예 성신여자중학교 교과과 배재중학교의 미술교원으로 있으면서 후대교 육사업에 정열을 기울였다.

하지만 외세가 몰아온 민족비운의 검은구름으로 해방의 감격은 오래가지 못했다.

겨레의 생사호망을 관가름해야 할 시각에 과연 미술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정중어는 결연히 인민이 가는 길, 정의와 량심의 길에 나섰다.

그러하여 그는 이전의 사할 풍경이나 꽃, 새, 풀과 벌레 등을 담던 화풍에 사나운 파도와 같이 일떠선 남녘계리의 모습을 담기 시작하였다.

《대포작들이》(5월의 데모) (1946년), 《병든 서원》(1947년), 《분노한 인민》(1947년), 《산사람들》(1948년)이었다.

정중어는 외세와 그 주구들의 책동을 반대하여 뜻을 같이하는 미술가들과 함께 7인전을 여는 등 진보적인 창작활동과 사회운동을 계속 벌

려나갔다.

그 과정에 그는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주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열렬한 흠모의 마음을 간직하게 되었고 공화국에서 참다운 삶을 누려가는 근로하는 인민들에 대한 동경을 금할수가 없었다.

전쟁이 일어나자 정중어는 절세의 애국자이신 김일성장군님을 따르는 남녘민심의 용용한 대하에 합류해나섰다.

해방된 남녘땅에서 문화선전성 문화국(당시)에서 사업하던 그는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에 국적인 미술가들과 함께 북으로 들어왔다.

협상준비를 넘고 넘어 죽음의 고비들을 헤치며 밤낮으로 가야 했던 길이었지만 그 길이 진정한 삶의 길이이고 력사앞에 몇몇한 길이라고 굳게 믿었기에 그런 줄을 끊을수 있었다.

그후 정중어는 중앙미술제작소 회화부(당시) 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전쟁 전기간 공화국의 인민들을 승리로 불러일으키는 수많은 전투적인 미술작품들을 창작하였다.

그러한 작품들로 조선화 《농민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1951년), 《진격》(1951년), 《바다가 보인다》(1952년), 《전선수송》(1952년) 등이 있다.

전후 우리 민족의 유구한 전통화인 조선화의 앞길에는 빛나는 전성기가 펼쳐졌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조선화를 토대로 하여 우리 미술을 발전시키는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었던것이다.

정중어를 비롯한 조선화화가들의 격정은 이루 말할수 없었다. 지난날 흉수처럼 쏟아져오는 서양화에 밀려오던당하던 조선화였다.

아버이수령님의 구상에 따라 평양미술대학에 조선화강좌가 처음으로 생겨나고 조선화화의 여러 중진들을 교단으로 불렀을 때 정중어도 맨 앞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그는 조선화강좌의 첫 교원으로, 강좌장으로 되었다. 그때가 1954년 1월이었다.

정중어는 수많은 미학적문제들과 형상수법들을 보다 풍부하게 탐구하면서 조선의 화가들이 처음으로 개척해야 할 생소한 길을 걷고있었다.

그러던 주재43(1954)년 8월 어느날이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어느 한 중학교에서 열린 평양미술대학 교원, 학생들의 제1차 미술작품전람회장을 찾아주시었다.

이곳에서는 무려 세시간동안에 걸쳐 전람회장의 작품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는데 정중어가 그린 조선화 《금강산》앞에서 오래도록 발걸음을 떼지 못하시었다.

그 작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명승인 금강산의 일경을 대담하게 채색화로 그린 풍경화였다.

이후로 그림을 바라보던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아주 잘된 작품이라고 못내 만족해하시면서 조선화는 이 그림과 같이 선명하고 아름다와야 하며 앞으로 조선화는 이렇게 발전시켜나가는것이 좋겠다고, 조선화는 언제나 조선사람의 감정에 맞다고 교시하시었다.

아버이수령님의 교시는 정중어의 가슴속에 끝없는 환희와 희망을 안겨주었다.

이때부터 정중어는 조선화의 유구한 전통을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계승발전시켜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그는 아버이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시던대로 조선화를 목화로부터 전면적인 채색화로 발전시키며 시대의 정신과 인민의 감정을 민족적형식의 화폭으로 진실하게 옮겨놓는 창작활동에 자신의 온 힘을 쏟아부었다.

조선화 《5월의 농촌》(1956년)은 그 과정에 창작된 그의 대표작품의 하나로서 당시의 채색화들 가운데서 가장 성공한 작품으로 알려져있다.

화가 정중어가 조선화발전을 위해 남긴 또 하나의 공로는 시대에 민감한 적극적인 인물주제화창작으로 조선화를 새로운 높이에 올려세우는데 이바지한것이다.

정중어가 창작한 인물주제화들 가운데서 가장 우수한 작품은 《고성인민들의 전선원호》이다. 이 그림은 1958년에 발표되었는데 현대 조선화의 성과작중 하나로 내외에 널리 알려져있다.

당시 이 작품에 대하여 어느 한 잡지에서는 이렇게 평하였다.

《고성인민들의 전선원호》는 구상의 크기와 깊이로 하여 뛰어난 작품이다.

여기서 옛 전통을 잘 살려서 6폭의 병풍형식을 취하였다. 대상의 사실주의적인 성격은 전시켜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그는 아버이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시던대로 조선화를 목화로부터 전면적인 채색화로 발전시키며 시대의 정신과 인민의 감정을 민족적형식의 화폭으로 진실하게 옮겨놓는 창작활동에 자신의 온 힘을 쏟아부었다.

조선화 《5월의 농촌》(1956년)은 그 과정에 창작된 그의 대표작품의 하나로서 당시의 채색화들 가운데서 가장 성공한 작품으로 알려져있다.

화가 정중어가 조선화발전을 위해 남긴 또 하나의 공로는 시대에 민감한 적극적인 인물주제화창작으로 조선화를 새로운 높이에 올려세우는데 이바지한것이다.

정중어가 창작한 인물주제화들 가운데서 가장 우수한 작품은 《고성인민들의 전선원호》이다. 이 그림은 1958년에 발표되었는데 현대 조선화의 성과작중 하나로 내외에 널리 알려져있다.

당시 이 작품에 대하여 어느 한 잡지에서는 이렇게 평하였다.

《고성인민들의 전선원호》는 구상의 크기와 깊이로 하여 뛰어난 작품이다.

나라 자신의 실천활동으로 학생들을 미래의 쟁쟁한 화가로 키워나갔다.

이제 제자들은 자기의 스승에 대해 박식하고 생활을 사랑하는 다감한 예술가였다 고 한결같이 회억하고있다.

정중어는 많은 후비들을 키워냈을뿐아니라 조선화의 유일한 화법들을 정리하고 체계화하기 위한 연구사업도 적극 벌려 여러건의 교수요강들과 《혁명적인 채색화를 힘차게 발전시키자》, 《조선화분야에서 채색화발전을 위한 몇가지 의견》 등의 논문들도 집필하였다.

1964년에 정중어는 조선미술가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조선화분과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날이 갈수록 커만 가는 나라의 믿음에 그는 어떻게 하나 보답할 일들로 가슴 불태웠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미술계에서 전환이 이루어진 나날에 정중어는 조선화분야의 책임일군으로서 조선화를 기본으로 우리 미술을 발전시켜나갈데 대한 주제적분에사상을 관철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였다.

조선미술가동맹에서 사업하던 나날에 그는 조선화 《만경대절경》(1970년), 《청봉의 아침》(1973년, 리

병호와 합작), 《양장정의 봄》(1977년), 《모란꽃과 병아리》(1977년), 《초가리》(1978년) 등 우수한 작품들을 내놓았으며 1978년 이후에는 만수대창작사 조선화단(당시)에 있으면서 조선화 《비파와 밀화부리》(1979년), 《모란꽃》(1979년), 《무궁화》(1981년)를 비롯한 많은 작품들을 내놓았다.

미술후비육성사업에서 세운 공로로 그는 1961년에 부교수의 학직을 수여받았으며 미술창작에서 이룩한 공로로 1974년에 공훈예술가, 1982년에는 인민예술가의 칭호를 수여받았다.

그는 한생애 걸쳐 1900여점의 조선화작품들을 창작하였으며 그의 작품들은 조선미술 박물관을 비롯한 여러 박물관들에 국보작품으로 소장되고 있따. 프랑스 등 서유럽 나라에도 널리 소개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가 사망한지 2년후인 주재75(1986)년 12월에 정관철, 정중어 2인전람회를 열도록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 주시었다.

그러하여 전쟁시기부터 1981년사이에 창작한 그의 작품들 가운데서 60여점의 작품들이 전시되었으며 수많은 관람자들이 찾아와 로화화를 추억하였다.

인생의 봄을 안겨주는 은혜로운 아버의 품에 안겨 민족회화의 전성시대를 직접 체험하면서 이름있는 조선화화가로 성장한 정중어는 오늘날도 사람들의 추억속에 남아있다.

본사기자



조선화 《고성인민들의 전선원호》(1958년 창작)